

해설자 대본

(대축일인 날의 평일 미사)



주의 사항

해설자 여러분들은 교우들에게 안내를 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과 말씀 및 기도를 선창하는 선창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안내는 오히려 미사 전례의 분위기를 망치며 교우들에게 분심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안내자로서의 역할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교우들에게 안내를 하는 해설자의 역할보다는 화답송이나 부속가나 복음 환호송을 선창하는 선창자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주의 사항을 꼭 숙지하십시오.

1. ‘앉으십시오.’나 ‘일어서십시오.’ 및 ‘무릎을 꿇으십시오.’와 같은 멘트는 미사 도중 그 어느 때에도 하지 않습니다.
2. ‘말씀 전례입니다.’, ‘성찬 전례입니다.’와 같은 멘트도 하지 않으며, ‘오늘의 제1독서는 ……부터 ……까지입니다.’와 같은 멘트도 하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3. 화답송을 시작할 때 ‘화답송 하겠습니다.’와 같은 멘트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교회의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영성체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체송을 시작할 때도 복사가 종을 치면 바로 영성체송의 본문을 읽으십시오. ‘영성체송~’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4. 신앙고백이나 보편지향기도 직전에도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신부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5. 성가 번호를 공지할 때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와 같은 정보 전달 멘트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단 2차 헌금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공지는 허용합니다.
6. 미사 후에 영광송 바치지 않습니다. 다만 간단히 성호경만 외는 것은 허용합니다.
7. 미사가 끝나고 ‘이것으로 미사를 끝마치겠습니다.’와 같은 멘트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파견 성가 끝나자마자 알아서 자연스럽게 미사가 끝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울러 모든 해설자 여러분에게 다음을 권합니다.

1. 여러분이 선창하는 화답송이나, 복음 환호송과 같은 기도문을 노래로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단 화답송을 일반 성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교우들이 앉거나 일어서는 때를 잘 모르는 경우, 가벼운 손 동작으로 알려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3. 화답송 선포는 가급적 독서대에 올라가서 하십시오. 해설자 활동의 의의는 안내 멘트를 말하는 안내자의 모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독서자의 모습과 기도문을 선창하는 선창자로서의 모습에서 찾아야 합니다.
4. 성가 번호는 어차피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성가 번호 멘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예식

<중을 친다.>

◇ 입당 성가 ()번입니다.

입당

<선다>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 아멘.

인사

- | | |
|--|--|
| <p>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 <p>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참회

+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 | | |
|---|--|
| <p>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능하신 하느님과 ◎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p>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p>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또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소서. | <p>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 아멘.

자비송

<앞의 참회 예식에서 ㉔형식을 바치지 않았으면 이때 바친다.>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대영광송(사순이나 대림 시기라도 축일 이상의 평일 미사에서는 대영광송을 바칩니다.)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일, 대축일, 축일 또는 지역의 성대한 축제에는 서서 대영광송을 모두 함께 또는 번갈아 노래하거나 외운다.>

✦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 하느님의 어린양,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본기도

✦ 기도합시다.

✦ …… 비나이다. <또는> ……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말씀 전례

◇ (멘트 없음)

제1독서

<읽는다>

화답송

◇ (제1독서가 끝나고 묵상을 한 후에 시작)

제2독서

복음 환호송

<선다>

(제2독서가 끝나고 묵상을 한 후에 시작)

<사순 시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순 시기 아닌 때>

◇ 알렐루야.

복음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부제(사제)와 함께.
- ✦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 주님, 영광 받으소서.

✦ .
.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앉는다>

◇ (멘트 없음. 대축일이므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물 준비 성가를 부름.)

신앙 고백

<선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대신에 특히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는, 사도 신경을 바칠 수 있다.>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 (신앙 고백 끝나자마자 다음 쪽의 예물 준비 성가 공지)

성찬 전례

예물 준비

◇ 예물 준비 성가 ()번입니다. / 성가 ()번입니다.

✦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선다>

◎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예물기도

✦ 비나이다. <또는>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감사기도

감사송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

.

.

◎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신앙의 신비여

+ 신앙의 신비여!

- ◎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마침 영광송

+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받으소서.

- ◎ 아멘.

영성체 예식

주님의 기도

<선다>

- +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평화 예식

-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 아멘.
- +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와 함께.
- +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 ◎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영성체

- +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 ◎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 영성체 성가 ()번입니다. / 성가 ()번입니다.

영성체 후 기도

<선다>

- + 기도합시다.
- + 비나이다. <또는> 다스리시나이다.
- ◎ 아멘.

마침 예식

강복

- +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와 함께.
-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 ◎ 아멘.

파견

- +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 ◎ 하나님 감사합니다.

◇ 파견 성가 ()번입니다.

◇ (영광송은 하지 않음)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